

가상대학의 교수 - 학습체제

- 경희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강 인 애 | 경희대 교직과 교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가상대학'의 등장

가상대학은 분명 기존의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제이다. 가상(virtual)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듯이 - '가상대학'은 보통 '사이버(cyber) 대학', '원격(distance) 대학'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가상대학은 우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약된 시·공간에서 행해지던 종래의 교육체제의 틀을 벗어난 형태의 교육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가상대학은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의 한 형태로서 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케이블 TV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체제인데, 현재 국내외 가상대학에서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10월 교육부의 '원격대학 프로그램 시범 운영대학 선정계획' 발표 이후 1998년 2월 54개의 시범운영기관과 10개의 실험운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기관을 살펴보면 7개의 컨소시엄과 8개의 단독 참여대학 등 총 61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대학 수가 증가하여 총 8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가상대학 시범 운영사업에 참여한 대학들

을 대상으로 최근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학의 72%가 향후 가상대학을 설립할 계획이 있고, 과반수의 대학이 2001년과 2002년에 가상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며, 응답의 80%가 개별 가상대학 설립 보다는 컨소시엄의 형태의 가상대학 설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가상대학은 요사이 지식기반 사회라는 이름 하에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안이 되어 새로운 대안적 교육체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근래에 들어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을 통해 정식으로 인정하게 될 가상대학(교육부에서는 원격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많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대학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가상대학 강좌 개설, 학사운영, 교사 및 설비, 하드웨어 설비, 소프트웨어 설비와 같은 부분을 다루고, 상대적으로 가상대학 강사진들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체제, 교수전략, 수업설계와 같은 부분은 등한시하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의 교실 면 대 면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교수-학습환경(예를 들어, 강의

안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전개하거나 평가방식을 사지선다형이나 객관식 시험에 국한시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수정·보완(교실에서의 면대면 수업보다는 좀더 많은 질의응답, 토론을 강조하거나 부분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도입하는 형태)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상대학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혹은 대안적(alternative) 교육체제라는 전제로 볼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환경 역시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나마 가상대학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환경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상대학의 교수-학습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살펴본다.

가상대학 '교수-학습체제'의 이론적 모형

가상대학이 원격교육의 한 유형이라고 전제할 때, 가상대학의 교수-학습체제에 필요한 이론적 모형을 원격교육에 적용된 이론적 모형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키건(Keegan)이 1986년 펴낸 『원격교육의 기초(The Foundations of Distance Education)』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3가지 대표적인 모형이 있다. 곧 개별화와 자율성의 이론(theory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수업의 산업화 이론(theory of industrialization of teaching), 그리고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이론(theory of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수업의 산업화 이론(가르치는 교수진과 제작을 도와주는 스태프의 구분을 통한 노동의 분화, 수업과정에 적용되는 기계나 매체로 인한 수업의 기계화, 다수에게 동질의 교육을 비용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량생산체제)은 '60년대 이루어진 가상교육(좀더 정확히는 원격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가상대학의 교수-학습체제 이론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1) 개별화와 자율성의 이론

우선 개별화와 자율성의 이론에 따르면, 가상공간의 수업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매체에 의한 수업인 만큼 학생의 개별적 필요와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나아가 그들이 좀더 수업에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교수자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는 분명히 다른 것인 만큼 가상수업의 기본적 전제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자율성과 개별화를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교수자와 학생 간의 역할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기존 교수자의 역할이 정보와 지식 제공자에 있었던 것과 달리 가상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언자, 촉진자로 변화하게 된다. 더불어 기존 수업에서 이루어지던 교수자에 의한 일방향적 의사소통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은 그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율성과 책임성은 동시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2)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이론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이론은 위의 개별화와 자율성의 이론과도 연결되어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 역시 교수자와 학생,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환경(예를 들어, e-mail이나 토론방, 실시간 채팅, 화상 시스템을 통한 토론, 대화, 소그룹 간의 학습활동, 질의응답)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은 가상수업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다. 흔히 매체를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수업은 매우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선입견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가상수업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가상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매체를 통한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교실에서의 면 대 면 수업에서 경험하는 감성적 측면을 가능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기 위해서 교수자는 의도적이라도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자유로운, 편안한 학습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수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교수자와 학생들,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분위기(rapport)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수업 공간에 '휴게실' 같은 곳을 만들어 자기소개나 수업 외의 이야기 등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일단 학생들과의 친밀한 분위기 형성을 통해 편안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참여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는 단지 학습분위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동기 부여는 이러한 외적 요인 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 즉 수업이 자신의 관심이나 진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좀더 지속적이며 강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흔히 '실제적 성격(authentic)의 과제'라고 표현한다. 그저 수업을 위한 수업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과제나 문제처럼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비구조적인 성격의 과제를 의미한다.

가상수업의 약점이라면 수업의 개별화·자율화라는 점으로 인해 자칫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관여나 개입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럴 경우 대부분의 수업은 실패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별화·자율화 외에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원칙, 곧 활발한 상호작용과 쌍방향 의사소통, 그리고 실제적 성격의 과제와 같은 요소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등가성 이론

기간의 가상수업을 위한 이론 외에도 가상대학의 교수-학습환경에 적용되어야 할 이론으로 '등가성 이론(equivalency theory)'이 있다. 등가성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교실에서의 면 대 면 수업이 제공하는 여러 수업 효과를 가능하면 가상공간의 수업에서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가상대학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교육이나 재훈련, 나아가 평생교육의 목적을 지닌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육 인구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그 숫자 뿐만 아니라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 처해 있는 교육 인구에게 면 대 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형식적·비형식적인 수업 효과를 가능하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주로 문자중심의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환경(물론 토론이나 대화를 위한 토론방, 실시간 채팅, e-mail 등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에 덧붙여 동영상 강의와 화상 시스템 활용을 통해 대면식 수업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기능의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는 추세인 만큼 '등가성 이론'의 적용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4) 가상공간의 수행중심적 평가

등가성 이론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결과로서의 학습성취도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흔히 '평가'라고 하면 주로 중간고사나 학기말에 이루어지는 시험이 떠오른다. 그러나 앞서 자율성과 개별화 이론,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이론, 그

리고 등가성 이론으로 특징지어 지는 가상공간에서의 교수-학습환경은 결국 교수-학습환경의 '페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교실 수업, 면대면 수업과는 판이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단지 수업방법, 수업 내용, 교수자와 학생 간의 역할 변화와 같은 면의 변화 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페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흔히 가상수업에서의 평가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평가의 정확성이다. 곧, 과연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등록한 바로 그 학생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이다. 과연 학생들의 평가가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평가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첫번째의 경우는 화상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개인 학생의 여러 가지 개인적 정보를 일일이 다 입력하게 하여 자신임을 입증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의 경우는 좀더 복잡한 이슈를 제기한다. 즉, 기존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일반적 형태는 중간고사나 학기말 시험과 같이, 수업과 '구분'되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소로서의 평가였다. 그러나 가상수업에서는 평가는, 수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융해되어(embedded)',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공간 상에서 과제 해결 과정에서 토론의 참여도, 의견 제시 회수, 의견의 질적 수준, 각 팀에 대한 팀원으로서의 기여도, 그리고 결과물로서의 과제 해결안 등과 같은 활동에도 점수를 부여하여 결과중심적인 평가가 아닌 과정중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지 시험에 의한 결과중심적 평가가 아니라 프로젝트 해결 과정과 해결안,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방법이 평가 도구로서 이용되어 과정중심적인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흔히 이러한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은 '수행중심적(performance-based) 평가,'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평가,' 그리고 '실제적(authentic) 평가'로 표현된다.

가상수업의 모형

다음에서는 위의 가상공간에서의 교수-학습환경에 적용되는 이론들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국내의 사례들은 가상대학, 가상수업의 설계, 적용, 수업전략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걸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함께 「교육공학연구」라는 학회지를 통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노바 사우스이스턴 대학(Nova Southeastern University)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수업 모형(뉴욕,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은 물론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학생들도 참여)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상대학의 교수-학습체제의 이상적 모형의 한 사례이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 대학의 가상수업 모형은 수업방식(pedagogy), 수업구조(structure), 그리고 기술(technology)이라는 세 요소의 균형 잡힌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1) 수업방식

우선 수업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 간의 토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매우 강조한다. 미리 학습하고 읽어 올 내용을 배포하고, 학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학습가이드'를 작성, 제공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앞으로의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 무엇인지 학습목표를 설정해보도록 한다. 더불어 질문할 사항을 작성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학습진행이나 학습내용의 전개를 학생의 요구와 관심에 맞추도록 한다. 또한 보고서나 과제는 항상 '실제적' 성격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연결을 주선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방식은 실제적 성격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초기 작업에서 시작하여 결과물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 순서(아이디어 생성, 진행 과정 자체와 그 과정 상의 느낌, 고민, 생각, 문제점을 저널에 작성), 학습내용(읽고 참조한 학습물에 대한 기록과 수집), 피드백(학생들 간의 피드백,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 수집), 그리고 성과물·결과물(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결과를 발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업방식이 실질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곧 오디오 컨퍼런싱(전화회사와 사전 계약을 통해, toll-free 전화 번호를 통해 어디서든 매우 효율적으로 교수자와의 접속이 가능하며, 통화내용의 녹음기능도 포함), 비디오 컨퍼런싱(데스크탑 컴퓨터에 장착된 화상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전에 학생들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ISDN을 사용하도록 준비하여 강의, 토론, 발표에 활용), 그리고 그 외에 인터넷 채팅(First Class Internet client인 Embanet을 사용하는데, 여러 기능적 편리함과 용이함 외에도 24시간 온라인 상에서와 전화를 통해 A/S가 가능), e-mail, news group, Gopher 등을 사용하고 있다.

2) 수업구조

수업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가상공간에서의 수업을 전제로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예를 들어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한주일을 완전히 면 대 면 수업에 할애한다든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해 면 대 면 수업기간도 병행하고 있다. 이 사례 외에도 가상공간에서의 수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가상수업이라 할 지라도 적어도 몇 번은(예를 들어, 학기초, 중간교사, 학기말 등) 면 대 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 그 수업이 성공할 확률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술을 매개로 하는 수업인 만큼 학생들과 학생들 간에,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나아가 돈독한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한데 이런 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면 대 면 수업의 기회를 포함시키거나,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Nova 대학의 경우처럼 오디오나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을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흔히 가상수업이라 하면 대단위 수업(예를 들어 200여 명에서 천여 명에 이르는 수업)이 기본 전제이자 목적인 양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실제 어느 통신회사와 대학이 연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수업의 경우, 이러한 전제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하는 교사들의 수업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가상수업의 특성은 개별화, 자율성,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그리고 나아가 등가성의 개념에 있다. 따라서 가상수업일수록 오히려 학생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Nova 대학의 수업은 한과목(여기서는 Clus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당 학생수가 20~3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과목 담당교수 외에도 해당과목에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는 과목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 외에도 행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과목수강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인원에 의한 수업 진행과 더불어 그 과목 수강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목 코디네이터로 인해, 가상수업에서 흔히 학생들이 경험하기 쉬운 비인간적 삭막함이나 자율적 학습 진행에 따른 인지적, 심리적 부담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Nova 대학에서 행해지는 수업환경은 가상공간에서의 수업에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개념(개별화, 자율성, 상호작용성, 의사소통, 등가성)이 매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에 따라 패러다임을 분류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가상대학의 교수-학습체제는 '조직변형화(transform-

ing)'의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조직변형화라는 용어가 나타내듯이, 이 단계에 이르면 정보통신기술은 단지 기술로서, 매체로서, 수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벗어나 교수-학습환경 자체를 변형·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실지로 Nova 가상대학 수업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적 도움이 전제되어 가능한 이 대학에서 채택하는 수업방식(교수자와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실제적 성격의 과제중심적 학습 전개, 과정중심적 평가방식 도입,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는 면 대 면식 수업)은 단순히 새로운 매체 도입으로 인한 수업환경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교수-학습체제 자체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가상대학 교육패러다임의 새로운 개념들

가상대학에서의 교수-학습체제는 요즘 교육패러다임에서 거론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통합되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개별화, 자율성,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가성, 수행중심적 평가라는 개별적 개념을 통합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컴퓨터 보조 협동 학습(CSCL: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이라는 것과 '텔레멘터링(Telementor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가 있다.

CSCL은 가상대학의 교수-학습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컴퓨터 매개 학습'이라는 것과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개별적인 학습에 앞서 소그룹의 형태로, 혹은 개별적 학습을 할 경우라도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수업환경을 이루어 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개별화인 동시에 공동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CSCL이라는 개념은 가상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교수-학습환경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텔레멘터링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다. '텔리'가 의미하는 것이 이미 공간적 거리와 테크놀러지를 매개로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으며, '멘터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전의 교수자의 역할로 강조되던 '지식전달'에서 좀더 확장되어, 학생들의 학습 전반에 대한 '멘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교수자의 역할과 기능의 대대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위의 CSCL과 텔레멘터링이라는 두 개념이 다시 통합된 개념이다. 결국 학습이라는 것은 개별적 활동이 아니라, 비슷한 관심을 가진 자들(학생, 교수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논의되는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적 활동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이 상호 만나 공유되고, 결국은 새로운 지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보는 개념이다.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전자공간 상에서,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자공간 상의 포럼(forum)'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대입된 교수-학습체제가 앞으로의 가상대학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가상대학의 현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는 가상대학의 교수-학습체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볼 때, 아직은 위에 제시된 가상공간의 교수-학습체제를 위한 이론과 개념들이 대입되기에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아직은 기존의 강의중심적, 교수자 중심적 수업 모형을 교실이라는 곳에서 가상공간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유인물이나 칠판판을 전자칠판이라는 곳

으로 옮겨졌을 뿐, 여전히 교수자의 강의가 학습내용의 중심이 되고, 교수자의 강의가 학생들의 생각, 논의, 토론을 통한 지식 구성에 앞서 중요하며, 평가 역시 기존의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결과중심적 평가가 여전히 두드러진다.

물론 가상대학에서의 바람직한 교수-학습환경으로 제시한 여러 원칙과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학생은 물론, 교수자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보통 일반 정규강좌의 2~4배)을 요구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작업임에는 틀림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대학 교수자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센티브제(예를 들어, 과목당 조교 1명을 배정한다거나, 연구비 지원한다거나, 수업시간을 일반강좌의 2배로 여긴다거나)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테크놀러지를 매개로 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이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주제의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의 교수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역시 절실하다.

대학의 경우 지금껏 새로운 지식 창출이라는 역할을 통해 다른 어느 교육체제에 보다 늘 선도적 위치를 점유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환경의 적용,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법이나 수업전략과 같은 분야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일고 있는 변화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는 현실이다. 이제 가상대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수-학습체제에 대한 좀더 확실한 이해와 그를 통한 실질적 적용을 통해, 교수-학습환경의 측면에서 예의 선도적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

강인애

연세대 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영문학석사를 받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육공학전공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교육대학원 소속 교육컨설팅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왜 구성주의인가』, 『과연 열린시대인가』, 『네트워크 트렌드』 등 다수가 있으며, 구성주의 이론과 웹기반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다수 있다.